

# 역사성 보존을 위한 구 국악사양성소(별오름극장)의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modeling of The Training Center for Performer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Studio 'Byeol') for Historicity Conservation

Author 이완건 Lee, Wan-Geon / 정희원,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공학박사, 건축사

**Abstract** Recently, the recognition is changing about cultural heritage, and the various types of buildings or facilities of modern or contemporary times have been designated as cultural properties after that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System is enforc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how the newly born the historic buildings of modern or contemporary times through the remodeling process of the Studio 'Byeol'(the Training Center for Performer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so-called a microcosm of performing arts history. In the process, it will examine the merits and demerits of various alternatives and the direction of the remodeling etc., and propose an utilization as a basic data of post evaluation for the remodeling of a historic building. The result are as followings. Firstly, the remodeling that gave a new physical properties to a building can be used a method of conservation and reuse on a historic building. The remodeling of a historic building must be eclectically progress between the owner and the citizen or the economic value and the historicity conservation. And, the remodeling of historic buildings such as the Training Center for Performer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must consider the conservation of the exterior walls in whole or in part at least. Secondly, an architect Lee Hee Tae(李喜泰) who had been to develop his own architectural vocabulary and to test based on the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the Training Center for Performer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must be newly evaluated today. Lastly, the remodeling alternatives of the Training Center for Performer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have been analyzed with three types, which is 'repairing only the interior which maintains the size and an appearance of present', 'extending the outer wall to the external column line', 'extending the basement'. And, it was analyzed with the appropriate final decision that it remodels only the interior in the current situation because of a historicity, a budget, a relevant law etc.

**Keywords** 역사성, 보존, 리모델링, 별오름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국립극장, 국악사양성소  
Historicity, Conservation, Remodeling, Studio 'Byeol', The Performing Arts Museum of Korea,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The Training Center for Performer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등록문화재 제도 가 시행된 이래 근·현대기의 다양한 건조물 또는 시설물 형태의 사례들이 지정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재청이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근현대 군사 관련 유물 7 건을 등록문화재로 올리겠다고 예고하였다. 이렇듯 다종의 대상들이 오늘날 새롭게 가치를 평가 받고 있으며 특히 근대건축은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가능한 물

리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절한 보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공연예술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남산 국립극장의 별관인 별오름극장(舊 국악사양성소)의 리모델링<sup>1)</sup> 과정을 통하여 역사성을 지닌 근·현대기의 건축물을 오늘날 어떻게 새롭게 생명을 불어 넣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 속에서 별오름극장의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들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

1) 2010년 5월 7일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공연예술박물관으로 개관

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종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공연예술박물관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도출한 대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별오름극장의 리모델링 과정을 되짚어 보고 사후평가 차원에서 앞으로의 근·현대기의 역사적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국립극장의 별관인 별오름극장(舊 국악사양성소)을 대상으로 현대적인 공연예술박물관으로의 기능을 수용하기 위하여 2008년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검토되었던 대안들을 살펴보고 현재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역사성을 지닌 건축물이 어떻게 현대적 기능을 충족하면서 보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역사성 보존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알아본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 및 2007년과 2010년에 현장답사(부분 약실측-2007년 11월 2회, 2010년 6월)하고 건축도면과 현황을 비교·분석한다.

연구의 진행은 2장에서 역사성과 리모델링에 대해 고찰하고, 3장에서는 구 국악사양성소의 역사성과 역사적 건축물의 리모델링 방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구 국악사양성소(별오름극장)의 리모델링 대안을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 2. 역사성과 리모델링의 일반적 고찰

### 2.1. 역사성

역사성(歷史性, Historicity)의 사전적 의미는 역사적 성질로 정의된다. 모든 사물은 만들어짐과 동시에 시간적 속성 즉, 역사적 물성을 지닌 채 다양하게 변모하게 된다. 특히 건축은 각각의 시대적 특성을 지닌 채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오늘의 도시를 형성해 가고 있다.

유네스코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권고'에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연 및 과거 세대가 남긴 문명의 자취와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인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대에 있어서 역사성이 지닌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서 회원국 간의 인식의 일치를 표명한 바 있다.<sup>2)</sup>

건축물은 가로(街路)의 일부분으로 도시의 풍경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가로를 구성하는 요소로 크게 대지, 건축물, 인간이라는 3가지 인자가 관련이 있다. 이 중에서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도시의 풍경 즉, 가로경관에 영향

을 미치며 특히, 건축물의 외관 형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로경관 차원에서 '역사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역사경관'으로 이해되어진다. 일반적인 역사경관은 특정한 정치·경제·문화적 상황 아래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그 지역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경관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3)</sup>

전통건축은 문화재란 인식하에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해 보존(保存)되고 있으나 근·현대기의 건축은 경제적 논리로 취급되어 쉽게 훼손되는 전철을 밟아왔다. 근·현대기의 역사적 건축이 가치 있는 문화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원형을 보존하는 기존의 문화재 정책의 보완으로 등록문화재 제도<sup>4)</sup>가 시행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외관(外觀)은 보존 하되 내부는 용도나 사정에 따라 변형과 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로브 크리에(Rob Krier)는 '건축에 있어서 파사드는 건물의 얼굴로서, 건물의 기능적 표현과 의미를 전달하는 요소이다'라고 하였다.<sup>5)</sup> 이렇듯 외관의 중요성은 동서양에서 오래전부터 부각되었으며 이러한 외관을 통한 건축의 의미전달 기능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 2.2. 보존과 리모델링

건축은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한다. 이렇듯 근·현대기에 만들어진 건축들은 당시의 다양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유무형의 가치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리모델링이 제안<sup>6)</sup>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법 제2조를 보면 '리모델링'을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sup>7)</sup>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리모델링(Remodeling), 유럽에서는 리노베이션(Renovation), 일본에서는 리폼(Reform)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중국 상해시의 신천지<sup>8)</sup>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근대건축을 리모델링하여 현대적인 커피숍으로 재활용하고 있

3) 이완건, 서울의 역사성 표현을 위한 근대건축 보존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논, 2005, p.13

4)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근대와 현대기에 형성된 건조물, 시설물, 역사유적, 생활문화자산 등을 대상으로 등록 및 완화된 보호조치를 취하여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한 제도

5) Rob Krier, Elements of Architecture, AD Publication Ltd, 1983, p.53

6) 가치 있는 부분들은 보존하면서 현재에도 사용가능한 부분보존(部分保存)의 한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제안될 수 있다.

7)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건축법 제2조)

8) 근대기 상해의 대표적 주거인 이농주택이 1980년대 이후, 개방정책에 따라 현대적 상업도시로 탈바꿈하면서 부분별한 철거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자 상해시는 역사성을 지닌 이것들에 대한 적절한 보존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분보존의 한 방법으로 외벽의 일부를 보존하면서 내부는 현대적으로 개조한 사례

2) 민창기·권영덕·최선주, 도시의 역사성 보전, 도시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6.9, p.3

는데, 이는 상해시의 장소성과 건축물이 가지는 역사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그림 1> 근대건축을 리모델링한 중국 상해 신천지의 스타벅스(左)와 커피빈(右)

현대도시는 자연, 공간, 생활, 역사 등에서 시간의 나이테(Layer)가 발견되고 이러한 역사성을 지닌 다양한 것들이 보존되고 공존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도시는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흔적들이 도시 여기저기에 많이 남아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 3. 구 국악사양성소의 역사성과 리모델링

#### 3.1. 구 국악사양성소의 역사성 분석

##### (1) 구 국악사양성소의 역사적 가치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국립극장은 서울 중구 태평로의 부민관(현 서울시의회 의사당, 1950.4~1950.6·25전쟁)을 시작으로 대구 문화극장(1953~1957.5), 명동의 시공관<sup>9)</sup>(1957.6 환도 후~1959), 명동의 국립극장(1962~1973)시대를 거쳐 남산의 국립극장 시대(1973~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1950년 4월 설립과 동시에 국립극단을 창단한 이래 국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창극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등 4개의 전속 단체를 가지고 있는 한국 현대공연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의 별오름극장은 1967년 남산을 중심으로 한 '종합민족문화센터' 건립계획의 일환으로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국립국악고등학교의 전신)로 1967년 12월에 설립된 후 국립극장의 별관으로 사용되었고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과 함께 건축가 이희태에 의해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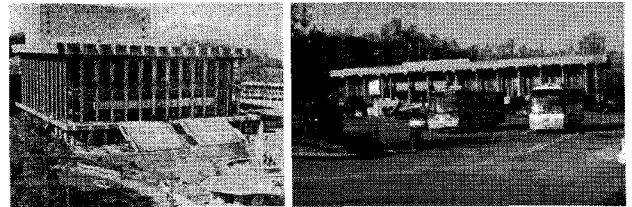
건축가 이희태는 절두산 성당(1964), 국립극장<sup>10)</sup>과 국악사양성소(1967), 국립경주박물관(1972), 공주박물관(1973) 등을 설계하였으며 지역의 역사와 토착적인 것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개성적인 양식을 완성했던 건축가로 평가되고 있다.<sup>11)</sup> 위의 작품들은 근대와 전통의 절충주의

적 양식이라는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구 국악사양성소는 한국 현대공연예술의 중심지로서의 장소성과 1960년대 말의 척박한 시대적 상황에서 전통건축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어휘 개발을 모색한 건축가 이희태의 실험적 작품으로서 시대성을 지닌 역사적 건축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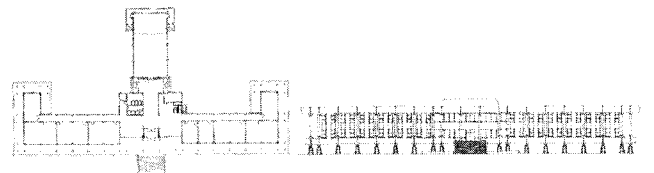
##### (2) 구 국악사양성소의 건축특성 분석

국악사양성소는 국악공연을 위한 연습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초기 지하1층, 지상2층에 7개의 교실과 10개의 연습실, 1개의 강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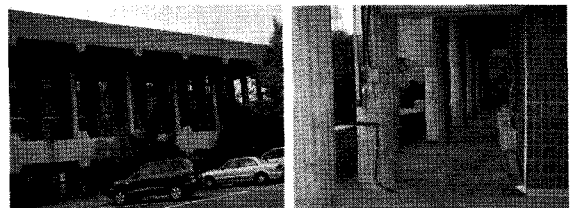
<그림 2, 3>과 같이 건축형태는 'E형'의 좌우대칭이며 전통건축의 회랑을 연상하는 전면의 열주와 배면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외부로 돌출된 수평의 지붕선과 지붕선 아래의 다각형 요철은 서까래가 노출된 전통 목조건축의 처마를 연상하는 디자인이다. 또한 1층 바닥은 지면에서 띄워져 있어 경회루 등에서 보이는 펠로티 공간 또는 높은 기단위에 축조되는 전통건축의 기법을 반영하는 듯하다. 1층 바닥은 외벽에서 돌출되어 1층에서 2층으로 연속된 기둥을 받고 있으면서 뒷마루를 연상시킨다. 1층의 난간 또한 지붕부의 디테일과 동일하게 반복 처리됨으로써 전면부에서 디자인적 통일감을 이루고 있으며 전통건축의 평난간을 연상시킨다.



<그림 2> 개관 당시 대극장과 국악사양성소 전경(左), 리모델링 전 별오름극장 전경(2007년 11월, 右)



<그림 3> 구 국악사양성소의 평면도(左)와 입면도(右)<sup>12)</sup>



<그림 4> 노출콘크리트와 적벽돌 입면(左)과 기둥의 면처리(右)

9) 1934년에 건립된 바로크 양식의 명치좌로 불렸던 영화관 건물. 해방 후 시공관을 거쳐서 국립극장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문화예술의 중심지였으나 그 후 대한투자금융에 매각된 뒤 영업장으로 사용되었다. 2003년 12월 문화관광부에서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통하여 '명동예술극장'으로 2009년 6월 5일 재개관하였다.

10) 국립극장 대극장(해오름극장)과 달오름극장은 1967년 착공하여 1973년 완공됨-<http://www.ntok.go.kr>(국립극장)

11) 김경수, 한국 현대건축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1989,









평면계획에 있어서 전면부는 4500mm 모듈을 기본으로 하고 출입구와 양쪽 모서리 부분에 2000mm 간격으로 기둥을 배치함으로써 변화를 피하고 있으나 후면부에는 이러한 윤율이 보이지 않는다. 측면은 2000mm(회랑)+6000mm(실) + 2000mm(복도) + 6000mm(실) + 2000mm(회랑)으로 모듈계획이 되어 있다. <그림 4>와 같이 재료는 전체적으로 노출콘크리트를 기본으로 적벽돌을 세워쌓기로 입면을 마감하고 있고, 기둥은 노출콘크리트 마감이나 언뜻 서양건축에서 보이는 홈파기(Fluting) 기법<sup>13)</sup>도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별오름극장은 국립극장 대극장과 유사점도 발견되나 또 다른 형식의 한국 전통건축의 조형언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건축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1960년대의 타 건축가들과는 차별성을 갖는 디자인적 특징을 가진 별오름극장은 이희태라는 건축가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표적 건축 가운데 하나로서 Masaru Maeno<sup>14)</sup>가 이야기 하고 있듯 예술성, 기념성, 회소성, 친숙성을 지닌 건축으로 평가할 수 있어 보존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대적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의 방향 또한 이러한 역사성을 지닌 디테일들이 보존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2. 역사성 보존을 위한 리모델링 방법

역사성 보존을 위한 방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크게 건물 전체를 보존하는 전면보존, 일부분을 보존하는 부분보존, 본래의 건물을 생각나게 하는 이미지 보존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부분보존 형식에서도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 부위에 따라 동별(棟別), 외관(外觀), 파사드(Facade), 엘리먼트(Element), 인테리어(Interior) 보존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의 외관 일부 및 실내 부분이 현대적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본관(현 화폐금융박물관)은 전면보존, 일민미술관(외관 보존, 실내를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카페로 활용)과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파사드 보존)은 부분보존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sup>15)</sup>은 르네상스식 건축물인 옛 대법원 건물의 전면부(Facade)를 보존한 채 후면부를 현대식 건물로 건립하여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현대적 기능을 수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표 1>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유형 및 실내 리모델링 유무<sup>16)</sup>

| 유형         | 보존 내용  | 유형          | 보존 내용  |
|------------|--|-------------|--|
| 전면 보존 (有)* |  건물의 전면(全面)을 보존함                | 이미지 보존 (有)* |  종전 건물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보존함   |
| 동별 (有)*    |  건물의 1개棟과 그부분을 보존함              | 파사드 (有)*    |  도로에 면한 건물의 전면(前面)의 외벽을 보존함 |
| 부분 보존 (有)* |  건물의 외관을 보존함                    | 부분 보존 (有)*  |  건물의 상징으로서 요소(Element)를 보존함 |
|            |  외관을 보존함으로써 마감재료 등의 외장(外裝)을 보존함 |             |  건물의 실내(Interior)를 보존함      |

\*有 또는 無-실내 리모델링의 가능 유무(有無)를 표시함

David R. Dibner와 Amy Dibner-Dunlap는 역사가 깊고 건축적으로 중요한 건축물들에 대한 증축에서 외관 설계의 접근방법으로 몇 가지 대안들을 - 복사(Duplication), 대조(Contrast), 유추적 도입(Recall), 맥락(Context), 전이(Transition) - 제시하고 있다.<sup>17)</sup>

최근 역사성을 지닌 건축물의 보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보존보다는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득 창출이 더 크기 때문에 건축주는 항상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다.

도심에서 최대한의 개발과 동시에 기존 건물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채택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새 건물과 결합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존 건물의 일부를 보존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보존의 정도는 그 프로젝트의 요구조건과 일반인의 관심정도, 그리고 각 상황이 처한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 가운데 정면(Facade)의 일부만을 유지시키려는 시도는 최근에 더욱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다. 프랑스 근대문학가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802~1885)는 '건축물은 소유주의 것이나 외관은 그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sup>18)</sup> 건축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실내의 현대적 기능 수용과 함께 최소한 역사성을 지닌 외관에 대한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모델링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 4. 구 국악사양성소(별오름극장)의 리모델링 대안 분석

13) 자세히 보면 파인 세로홈이 아니라 여러 각으로 된 면처리 부분으로 면과 면 사이의 모서리 부분이 수직선을 만들어 내고 있다.  
 14) Masaru Maeno, 역사적 전통적 촌락의 정의와 진정성, 전통역사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ICOMOS 한국위원회, 2002, pp.35-36  
 15) 구 대법원청사의 상징성이 잘 표현되고 건축적,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2006년 3월에 등록문화재 제237호로 지정되었음 -http://seoulmoa.seoul.go.kr(서울시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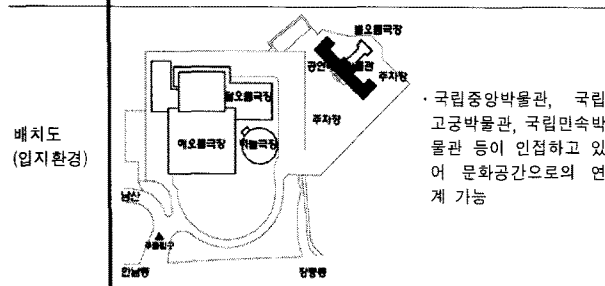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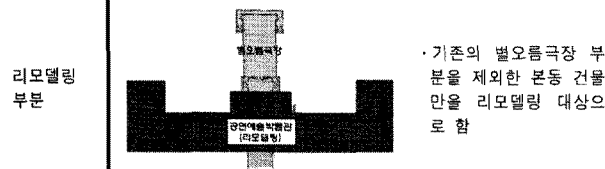
16) 清水眞一 외 3인, 歴史ある建物の活かし方—全國各地119の活用事例ガイド, 京都, 學芸出版社, 2001, p.16 제작성  
 17) David R. Dibner·Amy Dibner-Dunlap, Building Addition Design (建築増改築 디자인), 하재명 역, 태림문화사, 1995, pp.144-153  
 18) 김정동, 건축물은 소유주의 것이나 외관은 그의 것이 아니다, 건축, 대한건축학회지 제39권 제7호, 1995, p.51

#### 4.1. 현황 및 리모델링의 기본방향

서울시 중구 장충동의 국립극장은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舊 국악사양성소), KB청소년하늘극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하늘극장을 제외하고 모두가 1967년에 건축가 이희태에 의해 설계되었다. <표 2>에서와 같이 별오름극장은 해오름과 달오름극장과는 전혀 다른 배치 축에 따라 놓여있고 전면과 후면에 주차장을 두고 있다.

<표 2> 별오름극장(舊 국악사양성소) 개요 및 토지이용계획현황<sup>19)</sup>

| 구분                  | 2007년 11월   | 2010년 5월 7일(개관) | 비고              |           |
|---------------------|---|-----------------|-----------------|-----------|
| 명칭                  | 별오름극장<br>(영상물등급위원회)                                       | 공연예술박물관         | 舊국악사양<br>성소     |           |
| 주용도                 | 교사, 강당  | 문화 및 집회시설       |                 |           |
| 위치                  |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산14-67                                      |                 |                 |           |
| 대지면적                | 52,172㎡(일부)   |                 |                 |           |
| 건축면적                | 1,293.53㎡(별오름극장 제외)                                       |                 |                 |           |
| 연면적, 규모             | 2,851.52㎡   | 지하1층, 지상2층      |                 |           |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                 |           |
| 외부 마감               | 노출콘크리트, 적벽돌 마감  |                 |                 |           |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공원, 학교(지축), 대공방어협조구역, 보전임지, 과밀억제권역 등 |                 |                 |           |
| 실<br>용<br>도<br>(면적) | B1  | 국립극장 개인연습실      | 사무실, 교육실        | 1,049.97㎡ |
|                     | 1층  | 국립극장 예술진흥원      | 기획전시실, 공연 아카이브실 | 1,039.01㎡ |
|                     | 2층  | 영상물 등급위원회       | 상설전시실           | 762.54㎡   |



대지 경사에 의해 전면은 지상1층으로 주진입이 이루어지고 후면은 지하1층과 동일한 레벨에 주차장을 두고 있다.<sup>20)</sup>

리모델링 완공 이전까지 별오름극장은 지하1층에 국립극장 개인연습실, 지상1층에 국립극장 예술진흥회, 1층과 2층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후면부에 별오름극장이 위치하고 있었다. 공연예술박물관으로의 리모델링은 건물 후면부의 '별오름극장' 부분을 제외한 본동 건물(지하1층, 지상2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연예술은 장르적으로 볼 때 시공간의 예술로서 기록의 부재성을 갖는다는 특성이 있다. 연극, 무용, 국악 등

은 극장무대에서 공연되고 동시에 그 존재가 소멸된다. 따라서 창작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전시, 연구하는 박물관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연자료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 자료관 혹은 아카이브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sup>21)</sup> 특히 국립극장은 1950년 창립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연예술 기관으로서 다양한 장르의 창작물을 양산해 왔으나 이에 대한 자료의 보존 및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공연예술박물관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고 이에 건립된지 40년이 넘는 기존의 별오름극장을 리모델링하여 2010년 5월에 <표 2>와 같은 공연예술박물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표 3> 공연예술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간별 구성 및 소요실<sup>22)</sup>

| 공간별   | 기능          | 주요 소요실                      |
|-------|-------------|-----------------------------|
| 전시공간  | 전시          | 상설전시실, 공연사실, 기증품실 등         |
| 열람공간  | 자료 열람+이용서비스 | 도서열람실, 시청각실, 휴게실 등          |
| 보존공간  | 보존+아카이브     | 자료실, 수장고, 정리실, 영상편집실, 전산실 등 |
| 연구·교육 | 연구+교육       | 학예연구실, 연습실, 세미나실 등          |
| 사무공간  | 관리+통제       | 안내실, 행정실(관장실 포함) 등          |
| 기타    | 공용          | 기계실, 전기실, 계단실 등             |

\*기획전시실 - 연면적 부족에 따른 해오름극장의 로비 활용

<표 4> 공연예술박물관으로의 리모델링을 위한 제한 요소

| 구분    | 제한 사항   |
|-------|---|
| 현행법   | · 주용도 변경(교사→문화및집회시설)에 따른 관련법의 적법성 검토<br>· 주차장(덱트), 정화조(용량)<br>· 피난시설(직통계단등), 건축물의 내화구조(방화구획, 계단 및 복도, 거실반자의 높이, 기실의 채광), 건축설비 기준 등<br>·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천용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br>· 기타 관련 법률 검토 |
| 철거 범위 | · 구조안전진단 후 철거 가능 영역 설정<br>· 중성화가 심하게 진행된 부분은 철거 후 재시공하고 기둥, 보와 슬래브는 적절한 보수와 보강 계획 수립  |
| 증축 범위 | · 주변 환경과 관련법 등을 고려하여 지하층 또는 외벽 기둥열까지의 증축 가능성 검토   |
| 기타    | · 기계·전기실의 층고 확보에 따른 구조체 변경 가능성 검토<br>· 인허가 관련 행정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

공연예술박물관 건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새로운 대지에 신축하거나 기존 대지에 신축 또는 증개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제한된 예산 등의 문제로 기존 건물인 국립극장 별관(별오름극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의 방향이 정해졌고 이를 위해 <표 4>와 같이 몇 가지 제한 요소들이 검토되었다.

공연예술을 위한 박물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공간 구성은 공연예술 관련 자료들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매

19) <http://klis.seoul.go.kr>(한국토지정보시스템), 2010년 7월 1일 참조  
20) 지하1층이지만 후면부는 외벽이 노출되어 창호가 설치되어 있다.

21)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설립기본계획, 2007, p.22  
22) 국립극장, 앞의 책, pp.258-259

체별 장비들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는 열람공간(도서 열람실, 시청각실, 휴게실 등), 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보존을 위한 공간과 공연예술 관련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을 위한 전산실 등 관련 시설을 필요로 하는 보존공간(영상·음악·사진·대본·무대 및 의상디자인·포스터·프로그램 등 비도서 자료 보관실, 의상 및 소품 등의 보관실, 기증자료 보관실, 기타 자료의 수장고, 보존 작업실 등), 한국 공연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자료의 연구, 개발 및 교육 등을 위한 연구·교육공간(공연장르별 연구실, 강의실, 연습실, 세미나실 등),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지원시설인 사무공간(이용 안내 및 행정 지원실 등), 시설의 유지관리 및 공용의 공간(전기실, 기계실 등) 등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극장의 공연예술박물관은 <표 3>과 같은 소요 공간에 따른 재실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4.2. 리모델링 대안의 특성 분석

공연예술박물관의 리모델링 대안으로는 대지조건 및 건물의 특성상 크게 현재의 외관 및 규모를 유지하는 안(대안1), 외부 기둥열까지 증축하는 안(대안2)과 지하층을 증축하는 안(대안3)의 3가지 계획안이 가능할 것이다.

<표 5, 8>과 같이 대안1의 경우는 별오름극장이 지금까지 지녀온 역사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규모와 외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지하층에 보존공간(수장고, 편집·정리실)과 연구·교육공간(연습실)의 일부가 기능에 따라 배치되고 관람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상1층에 전시공간(상설전시실-무용·창극·국악·연극, 공연사실, 기증품실)이, 지상2층에는 보존공간(자료실, 전산실)과 연구·교육공간(연구실, 세미나실)의 일부, 열람공간(열람실, 시청각실) 및 행정지원시설이 배치된다.

대안1의 특징은 다양한 소요실에 대한 충분한 바닥면적은 확보할 수 없지만 현재의 외관을 유지할 수 있고 공사비 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다른 대안들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표 5> 리모델링을 위한 「대안1」의 층별 ZONING 방향 및 특징

|                |    | 대안1의 계획 내용   |  |
|----------------|----|--|--|
| 특징             |    | · 역사성을 고려한 현재 건축물의 규모 및 외관 유지  |  |
| 층별<br>조닝<br>요소 | B1 | · 기계/전기실, 수장고, 연습실 등을 소음과 기능에 따라 분리  |  |
|                | 1층 | · 상설전시실, 공연사실, 기증품실을 배치하여 1층에서 모든 공연 예술 관련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                           |  |
|                | 2층 | · 중앙 코어를 중심으로 한쪽에 자료의 보관 및 열람이 가능한 공간과 사무공간을 배치하고, 반대편에 연구공간을 배치하여 연구와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  |
| 장단점            |    | · 필요한 소요실을 모두 충분히 반영할 수 없지만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 현재 여건을 고려한다면 최선의 방안으로 검토됨                      |  |
| 비고             |    | · 접근이 용이한 지상1층에 전시공간을, 지하층과 지상2층에 보존, 열람, 연구·교육 공간을 배치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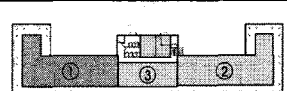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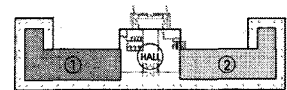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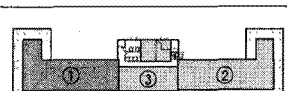
<표 6> 리모델링을 위한 「대안2」의 층별 ZONING 방향 및 특징

|                |    | 대안2의 계획 내용   |  |
|----------------|----|--|--|
| 특징             |    | · 현재의 외벽에서 외부 기둥열까지 벽체를 확장한 증축안<br>· 현재의 외관이 변경됨에 따라 역사성이 훼손됨  |  |
| 층별<br>조닝<br>요소 | B1 | · 층별 평면조닝은 대안1과 동일<br>· 외벽선이 외부 기둥열까지 확장됨에 따라 층별 바닥면적이 증대됨   |  |
|                | 2층 | · 대안1보다 많은 소요실 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나 외관 변경에 따른 비용 증대, 남산의 장소성 및 역사성의 훼손에 따른 시민단체의 민원 발생이 예상됨<br>· 관련법에 의한 증축의 어려움이 예상됨 |  |
| 장단점            |    | · 접근이 용이한 지상1층에 전시공간을, 지하층과 지상2층에 보존, 열람, 연구·교육 공간을 배치함  |  |

<표 7> 리모델링을 위한 「대안3」의 층별 ZONING 방향 및 특징

|                |    | 대안3의 계획 내용  |  |
|----------------|----|---|--|
| 특징             |    | · 역사성을 고려하여 현재 건축물의 외관 유지<br>· 지하2층으로 확장한 증축안   |  |
| 층별<br>조닝<br>요소 | B2 | · 지하2층을 확보하여 기계/전기실과 수장고를 배치  |  |
|                | B1 | · 중앙 코어를 중심으로 양쪽에 연구·교육시설을 분산 배치(연구실, 세미나실+연습실)하고 중앙에는 지하2층의 수장고와 연계하여 보존공간(편집실, 정리실 등)을 배치                               |  |
|                | 1층 | · 1층은 상설전시실(무용, 창극, 국악, 연극)로만 활용  |  |
|                | 2층 | · 1층의 상설전시실과 연계하여 전시공간(기증품실, 공연사실)을 한쪽에 배치하고 반대편에 보존공간(각종 자료실)을 배치<br>· 중앙부에 열람(도서열람실, 시청각실, 휴게실), 보존(전산실), 사무공간(행정실)을 배치 |  |
| 장단점            |    | · 대안1과 대안2 보다 여유 있는 소요실 및 역사성 확보 가능<br>· 지하2층으로의 증축에 따른 제반 비용의 증가(기존 건축물과의 연결을 위한 구조 보강 등)                                |  |
| 비고             |    | · 증축부분 바닥면적의 여유로 지상1층과 지상2층 일부를 전시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함  |  |

<표 8> 「대안1과 대안2」의 층별 공간구성 계획안

| 층별 | 내용       |   |
|----|----------|---|
| B1 | 평면<br>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계/전기실, 연습실</li> <li>2. 수장고</li> <li>3. 편집실, 정리실</li> </ul>  |
|    | 계획<br>개념 | · 중앙 코어를 중심으로 양쪽 공간으로의 원활한 동선계획<br>· 소요실 면적 확보와 기능 등을 고려한 기계/전기실과 수장고의 분리<br>· 프라이버시와 소음 등을 고려한 연습실 배치<br>· 중앙부에 기능실(편집 및 정리, 수장고와 연계) 배치   |
|    | 소요실      | · 기계/전기실, 수장고, 연습실, 영상편집실, 정리실  |
| 1층 | 평면<br>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설전시실</li> <li>2. 공연사실, 기증품실</li> </ul>                      |
|    | 계획<br>개념 | · 중앙 홀을 통한 원활한 전시실 유도<br>· 관람자의 선택에 따른 접근이 용이한 전시실 계획   |
|    | 소요실      | · 상설전시실, 공연사실, 기증품실   |
| 2층 | 평면<br>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료실</li> <li>2. 세미나실, 연구실</li> <li>3. 열람 행정, 시청각실</li> </ul> |
|    | 계획<br>개념 | · 코어와 복도를 통한 각 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계획<br>· 자료의 보존, 열람+행정(중앙부), 연구·교육 공간으로 분리  |
|    | 소요실      | · 자료실(영사실, 도서실, 비도서), 시청각실, 도서열람실, 행정실, 세미나실, 연구실, 전산실  |

‘대안2’는 전면 기둥열까지 증축한 계획, 층별 zoning은 ‘대안1’과 동일

<표 6, 8>과 같이 대안2의 경우는 별오름극장의 역사성 보다는 소요 바닥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외벽을 확장하는 계획안이다. 대안1보다는 많은 연면적을 만들 수 있지만 외관 변형에 따른 비용증대와 역사성 훼손에 따른 민원발생 등이 예상된다. 층별 조닝은 지하층에 보존공간과 연구·교육공간, 접근이 용이한 지상1층에 전시공간, 지상2층에는 보존공간과 연구·교육공간의 일부, 열람공간 및 행정지원시설이 배치되어 대안1과 동일하다.

<표 9> 「대안3」의 층별 공간구성 계획안

| 층별 | 내용  |
|----|---|
| B2 | <p>평면 구성</p> <p>1. 기계/전기실, 수장고</p>  |
|    | <p>계획 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의 주차장 부분을 지하2층으로의 증축</li> <li>· 기존 코어와 연결하고 기계/전기실, 수장고 등 배치</li> </ul>       |
|    | <p>소요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전기실, 수장고, 정리실, 소독실</li> </ul>  |
| B1 | <p>평면 구성</p> <p>1. 연구실, 세미나실<br/>2. 연습실<br/>3. 편집실, 정리실</p>   |
|    | <p>계획 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코어와 연결된 긴 복도로 각실 연결</li> <li>· 연구실, 세미나실+편집·정리실(중앙부)+연습실로 분리</li> </ul>      |
|    | <p>소요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실, 세미나실, 편집실, 정리실, 연습실</li> </ul>   |
| 1층 | <p>평면 구성</p> <p>1. 상설전시실</p>  |
|    | <p>계획 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코어와 홀을 통한 원활한 전시실 유도</li> <li>· 상설전시실 전용 공간</li> </ul>                       |
|    | <p>소요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설전시실(무용, 창극, 국악, 연극)</li> </ul>  |
| 2층 | <p>평면 구성</p> <p>1. 자료실<br/>2. 기증품실, 공연사실<br/>3. 행정실, 열람실</p>  |
|    | <p>계획 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의 사무공간을 중심으로 자료실과 전시실을 구분</li> <li>· 1층의 상설전시실과 연계하여 기증품실, 공연사실 배치</li> </ul> |
|    | <p>소요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실(영사실, 도서실, 버도서), 행정실, 열람실, 기증품실, 공연사실, 시청각실, 전산실, 휴게실</li> </ul>               |

<표 7, 9>와 같이 대안3의 경우는 대안1과 같이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대안2와 같은 소요 바닥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안이다. 건물 외관의 손상 없이 기존의 뒷면 주차장 하부를 지하층으로 굴착하여 필요한 소요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하2층을 새로 증축하는 방안이다. 지하2층에 보존공간(수장고)과 공용공간인 기계/전기실을 기존의 코어와 연결 증축하고, 지하1층에 지하2층의 수장고와 연결하여 중앙의 코어 인근에 보존공간인 편집실과 정리실 등을 배치하고 양쪽으로 연구·교육공간(연구실, 세미나실+연습실)을 조닝한다. 여유 있는 바닥면적으로 인하여 지상1층을 상설전시실(무용, 창극, 국악, 연극) 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 전시실(기증품실, 공연사실)을 2층에 배치한다. 지상2층에는 중앙에 사무(행정실)와 열람공간(열람실, 시청각실, 휴게실)을 두고 양쪽으로 보존공

간(자료실, 전산실)과 전시공간(기증품실, 공연사실)을 분리한다. 대안1과 대안2 보다 여유 있는 소요실 확보와 역사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하2층으로의 증축에 따른 제반 비용의 증가 등이 문제점이다.

위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분석한 결과 역사성, 예산, 관련법, 민원발생, 인허가절차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대안1'이 최적으로 판단된다.

<표 10> 공연예술박물관의 리모델링 후 현황(2010년 5월)<sup>23)</sup>

| 구분       | 내용   | 면적 등   |
|----------|--|--|
| 전경       |  |  |
|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  |
| 건축면적     | 1,293.53㎡(별오름극장 제외)  |  |
| 연면적, 규모  | 2,851.52㎡(지하1층, 지상2층)  |  |
| 평면도 & 실명 | <p>B1</p> <p>사무실(168㎡), 교육실(178㎡), 수장고(252㎡)</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전시실 (221㎡),</li> <li>· 아카이브실 (219㎡),</li> <li>· 로비및무지 연습(190㎡)</li> </ul> |
|          | <p>1층</p> <p>기획전시실, 공연 아카이브실</p>   |  |
|          | <p>2층</p> <p>상설전시실(공연주제+커뮤니티+공연예술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전시실: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주제별로 구성(무대의상, 무대디자인, 예술인의 방)</li> <li>· 연대기 전시실: 지난 100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연예술사의 흐름을 조명</li> </ul> |  |
| 기타       | · 공연 자료실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4층 활용 (공연 아카이브실과 연계)   | · 상설전시실 (554㎡)   |

최종적으로 <표 10>과 같이 2010년에 공연예술박물관이 개관하게 되었다. 기존 별오름극장의 외관(외피)을 보존하고 바닥면적의 증가 없이 실내부분만을 현대적 기능인 박물관으로 개조<sup>24)</sup>한 부분보존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앞에서 최적으로 검토되었던 '대안1'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초기의 대안검토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실들이 몇 개의 실로 조정되면서 공간구성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지하층에 보존공간(수장고), 연구·교육공간(교육실), 사무공간(사무실) 등이 배치되고, 지상1층에 기획전시실<sup>25)</sup>과 공연 아카이브실<sup>26)</sup>(보관함, 안내데스크, 자료검색대, 전자신문코너, A/V열람코너, 노트북코너, 멀티미디어 음악편집코너, 자료보존실, 다인감상실)이 중앙 코어를 중심으로 조닝되고 있다. 지상2층은 상설전

23) <http://museum.ntok.go.kr>(공연예술박물관) 참조

24) 엘리베이터, 담뱃터,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등이 추가

25) 학술적 주제부터 무대 장치의 원리에 이르기까지 매년 2-3회 공연 예술 관련 전시가 개최될 예정이며 현재 '6.25전쟁, 공연예술의 기억과 흔적'이라는 주제로 전시 중

26) 시청각 자료(공연 영상, 음향 자료 등) 열람 및 세미나 등 지원 -<http://museum.ntok.go.kr> 참조

시실로 중앙 코어 인근에 커뮤니티를 두어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공연주제 전시실과 공연예술사 전시실로 영역을 분리하고 있다. 또한 초기에 기획전시실은 해오름극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최종안에서는 지상1층에 배치하고 공연 자료실을 아카이브실과 연계하여 해오름극장 4층에 두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제한된 연면적 안에서 공연예술박물관으로의 실구성에 많은 제약이 있었겠지만 최적으로 검토되었던 '대안1'의 방식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것은 적절한 선택이라 판단되며 차후 근·현대기의 역사적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평가된다.

## 5. 결론

현대도시는 수많은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과정을 거치며 변화를 거듭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건축은 시대와 지역의 특성을 지닌 채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해 가고 있다. 도시의 정체성 또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이를 경제적 논리로만 평가하거나 문화재와 비문화재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적용하여 존재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도시경관은 무색무취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성을 지닌 건축물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 중 리모델링을 통해 새 생명을 불어 넣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립국악고등학교의 전신인 국악사양성소 즉, 오늘날 남산의 국립극장 별관인 별오름극장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건축물에 새로운 물성을 부여하는 리모델링은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한 부분 보존의 한 방법으로 사용 가능하며 또한 이것은 건축주와 시민, 경제적 가치와 역사성 보존이라는 상반된 입장 속에서 절충적인 방향 즉, 최소한의 역사적 가치는 보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로경관 나아가 역사경관 차원에서 건축물의 외관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외피는 보존될 수 있도록 외관 또는 파사드 보존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공연예술박물관의 리모델링은 좋은 사례라고 판단된다.

둘째, 1960년대 한국의 척박한 시대적 상황에서 전통 건축을 바탕으로 한 자신만의 디자인어휘 개발을 모색한 건축가 이희태와 그의 작품 가운데 하나인 구 국악사양성소는 한국 공연예술의 중심지로서의 장소성과 시대성을 지닌 역사적 건축물로 평가되며 오늘날 새롭게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통건축의 회랑을 연상시키는 전면의 열주, 수평의 지붕선, 다각형 요철의 난간과 지붕부 디테일, 'E형'의 좌우대칭의 건축형태, 기둥에 의한 전면과 측면의 반복적 운율 등은 구 국악사양성소에

서 보이는 건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현재의 대지에서 구 국악사양성소의 공연예술박물관으로의 리모델링을 위한 대안은 크게 3가지 방향 즉, 현재의 규모와 외관을 유지한 채 내부만을 수선하는 안, 외벽을 외부 기둥열 까지 증축하는 안 그리고 지하층을 증축하는 안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대안들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 상황에서 내부만을 리모델링하는 첫 번째 대안이 최적으로 판단되었다.

최종적인 공연예술박물관으로의 리모델링 또한 역사성 보존, 예산, 관련법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외관을 보존하고 내부만을 리모델링한 방안을 채택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라 생각되며 이 과정에서 초기에 계획되었던 소요실들이 일부 변경되거나 제외된 것은 추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는 건축가 이희태의 작품인 구 국악사양성소 건물이 공연예술박물관으로의 현대적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남을 수 있다면 우리의 도시는 시간의 층위가 겹겹이 쌓인 역사도시, 문화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도시경관은 풍성해 질 것이다.

## 참고문헌

1. 국립극장, 국립극장 50년사, 태학사, 2000
2. 김정동, 근대건축기행, 푸른역사, 1999
3. 정인하, 이희태 건축론:감각의 깊이, 시공문화사, 2003
4. 국립극장,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설립기본계획, 2007
5. 문화관광부, 명동 옛국립극장 복원사업기본계획연구, 2004
6. 김경수, 한국 현대건축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1989
7. 김정동, 건축물은 소유주의 것이나 외관은 그의 것이 아니다, 건축, 대한건축학회지 제39권 제7호, 1995
8. 민창기·권영덕·최선주, 도시의 역사성 보전, 도시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6
9. 박복섭, 명동 구 국립극장의 중·개축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 1995
10. 이완진, 서울의 역사성 표현을 위한 근대건축 보존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 2005
11. 田原幸夫, 建築の保存デザイン, 學芸出版社, 2003
12. David R. Dibner·Amy Dibner-Dunlap, Building Addition Design(建築増改築 디자인), 하계명 역, 태림문화사, 1995
13. Masaru Maeno, 역사적 전통적 촌락의 정의와 진정성, 전통역사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ICOMOS 한국위원회, 2002
14. Rob Krier, Elements of Architecture, AD Publication Ltd, 1983
15. 清水眞一 외 3인, 歴史ある建物の活かし方—全國各地119の活用事例ガイド, 京都, 學芸出版社, 2001
16. <http://www.ntok.go.kr>(국립극장)
17. <http://museum.ntok.go.kr>(공연예술박물관)
18. <http://klis.seoul.go.kr>(한국토지정보시스템)

[논문접수 : 2010. 07. 28]

[1차 심사 : 2010. 08. 24]

[2차 심사 : 2010. 09. 05]

[게재확정 : 2010. 10. 08]